

한글맞춤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흠지다 낫두리 빗깄 옆댕이 앞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남시 늑정이 덮개 뜯게질 갑작갑작하다 갑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랴다 늑수그레하다 얹죽얹죽하다

☞ 명사와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예를 들어 ‘값지다’는 명사 ‘값’에 접미사 ‘--지다’가 결합한 말이고 ‘덮개’는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들은 명사와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값) 값지다 (꽃) 꽃답다 (끝) 끝내 (멋) 멋지다 (별) 별뉘 (부엌) 부엌데기 (빋) 빋쟁이 (빋) 빋깄
(숯) 숯쟁이 (숲) 숲정이 (앞) 앞장 (옆) 옆구리 (옷) 옷매 (잎) 잎사귀 (흙) 흙질 (늑-) 늑다랴다
(늑-) 늑다리 (얹-) 얹조리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랴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끔하다 얄따랴다 얄팍하다
짤따랴다 짤막하다 실컷

☞ 첫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겹받침에서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할다’에서 ‘할짝거리다’가 될 때에는 앞의 ‘ㄹ’만 발음되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할짝거리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굶다’에서 ‘굶다랴다’가 될 때에는 뒤에 있는 받침인 ‘ㄱ’이 발음이 되므로 원형을 밝혀 ‘굶다랴다[국:따라타]’로 적는다. 즉 겹받침에서 앞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널다’에서 ‘널따랴다’와 ‘널찍하다’가 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꺾’에서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널따라타]는 ‘널따랴다’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넙쩌카다]는 ‘넙적하다’로 적는다.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둘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광어(廣魚)’에 해당하는 ‘넙치’는 의미상으로는 ‘널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분명히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도 의미상으로는 ‘움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다. ‘골막하다(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또한 ‘굶다(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와 어원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납작하다(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하다’로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달이 벌이 벼훅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결음 묶음 믿음 열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앞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종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鬐]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 그렇지만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라도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굽도리’에는 ‘돌다’의 의미가, ‘무녀리’에는 ‘열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문열이’로 적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너비 도리깨 빈털터리

즉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본뜻이 유지됨	본뜻에서 멀어짐
걸다	목걸이(목에 거는 물건)	목거리(목이 아픈 병)
놀다	놀음(놀이)	노름(돈내기)

다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에 ‘-이, -음’이 결합하여 소리가 변한 경우에는 변한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쉽-’에 ‘-이’가 결합한 말은 [쉬이]로 발음되고, ‘서럽-’에 ‘-음’이 결합한 말은 [서:러움]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것을 원형을 밝혀 ‘쉽이, 서럽음’으로 적으면 [쉬비, 서:러븜]으로 읽혀서 표준어와는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은 소리대로 ‘쉬이, 서러움’으로 적는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머거머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 ‘-이’,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① 명사로 된 것

너머(←넘-+-어) 뜨더귀(←뜯-+-어귀) 마감(←막-+-암) 마개(←막-+-애) 무덤(←묻-+-엄) 쓰레기(←쓸-+-에기)
얼개(←얼-+-애) 우스개(←웃-+-으개) 주검(←죽-+-엄)

② 부사로 된 것

도로(←돌-+-오) 마주(←맞-+-우) 모람모람(←몰-+-암) 미처(←밋-+-어) 바투(←발-+-우) 차마(←참-+-아)

③ 조사로 된 것

나마(←남-+-아) 부터(←불-+-어) 조차(←좃-+-아)

‘너머’는 ‘넘다’에서 온 말이지만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넘다’의 활용형 ‘넘어’와는 구별된다. ‘저 산 너머 고향이 있다’, ‘산을 넘어 고향에 간다’와 같이 쓰인다. ‘차마(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또한 ‘참다’에서 온 말이지만 부사로 굳어진 말로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참다’의 활용형 ‘참아’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조사 ‘나마, 부터, 조차’는 ‘남-아, 불-어, 좃-아’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조사가 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이 조항에서는 부사를 형성하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사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히’가 붙어 부사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급, 꾸준, 깨끗’을 말한다. 이처럼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와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할 때 어근의 본뜻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이’나 ‘-히’는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꾸준

- 꾸준--하다(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 꾸준--히(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버젓

- 버젓--하다(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다)
- 버젓--이(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다만, ‘--하다’가 붙지 않아서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될 때와 유지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다.

반듯

- 반듯--하다(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다)
- 반듯--이(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히)에 소나무가 반듯이 서 있다.
- 반드시(틀림없이 꼭)에 오늘 안에 반드시(꼭) 일을 끝내자.


지긱

- 지긱--하다(나이가 비교적 많아 등직하다)
- 지긱--이(나이가 비교적 많아 등직하게)에 나이가 지긱이 든 반백의 신사
- 지긱시(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에 눈을 지긱시 감았다.


이는 ‘높이, 많이, 밝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높-, 많-, 밝-’ 등의 어근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높이, 많이, 밝히’와 같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둘째,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이’가 결합해도 원래의 부사와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곰곰  곰곰--이(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생긱  생긱--이(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

셋째, 반복적인 명사 어근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0항)

긱긱  긱긱--이(긱긱마다)

집집  집집--이(모든 집마다)

한글맞춤법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땃싸리(대ㅂ싸리) 땃쌀(메ㅂ쌀) 땃씨(벼ㅂ씨) 입땃(이ㅂ땃) 입쌀(이ㅂ쌀) 접땃(저ㅂ땃)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고기(살ㅎ고기) 수개(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팎(안ㅎ팍) 암개(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단어가 형성될 때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땃씨]가 된다. 이런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땃씨’로 적는다. 또한 ‘살’과 ‘고기’가 결합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고기]가 되는데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살고기’로 적는다.

이처럼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앞말에 ‘ㅂ’ 소리가 덧나게 하는 ‘싸리, 쌀, 씨, 땃’ 등은 옛말에서 ‘리, , ,’와 같이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다. 이들은 후에 단일어에서 모두 ‘ㅂ’이 탈락되었는데 합성어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남게 된 것이다. 즉 ‘땃씨’는 현대에 ‘벼+씨’로 형성된 것이 아

한글맞춤법 규정 참고 자료

니라 ‘씨’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ㅎ’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살’, ‘수’ 등은 본래 ‘살ㅎ’, ‘수ㅎ’와 같이 ‘ㅎ’을 지닌 말이었고, 이 ‘ㅎ’이 단일어에서는 탈락하였지만 복합어에서는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즉 ‘살고기’는 현대에 ‘살+고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살’이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래의 예들도 ‘ㅂ’과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다.

넙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힙싸다, 힙쓸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다만, ‘수[雄]-’가 붙은 말이 모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규정 제7항에는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없는 ‘수고양이’ 등은 ‘수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암[雌]--’이 붙은 말 중에서도 ‘ㅎ’ 소리가 덧나는 ‘암캉아지, 암캐, 암컷’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암고양이’ 등은 ‘암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한글맞춤법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게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간편하게’가 [간편케]가 되면 ‘간편케’로 적는다. 그런데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가 통째로 줄지 않고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무능하다→무능타 부지런하다→부지런타 아니하다→아니타 감탄하게→감탄케 달성하게→달성케 실망하게→실망케
당하지→당치 무심하지→무심치 허송하지→허송치 분발하도록→분발토록 실천하도록→실천토록 추진하도록→추진
토록 결근하고자→결근코자 달성하고자→달성코자 사임하고자→사임코자 청하건대→청컨대 회상하건대→회상컨대
둘째,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다.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익숙하지 못하다→익숙지 못하다 갑갑하지 않다→갑갑지 않다→
갑갑잡다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깨끗잡다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넉넉잡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ㄱ]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넉넉잡다 [ㄷ]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깨끗잡다

[ㅂ] 답답하지 않다→답답지 않다→답답잡다 [ㄴ] 결근하고자→결근코자 [ㄹ] 분발하도록→분발토록

[ㅁ] 무심하지→무심치 [ㅇ] 회상하건대→회상컨대 [모음] 개의하지→개의치

[붙임 1] 그런데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든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

아니하다→않다 그러하다→그렇다 아무러하다→아무렇다 어떠하다→어떻다 이러하다→이렇다 저러하다→저렇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게, 않고, 않지, 않든지, 않도록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붙임 3]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사 ‘아무튼, 하여튼’은 ‘아무든, 하여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을 ‘이러튼, 저러튼, 그러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부사 ‘어떻든(어떻든 함께 가자)’은 형용사 ‘어떻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글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먹을 음식이 없다. / 먹을 것이 없다. 좋은 사람이 많다. / 좋은 이가 많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지 뜻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